



빈스코프의 일체형 커피제조기 '카플라노 클래식'

“갓 내린 커피, 야외서도 손쉽게 만들수 있어”

“카플라노 클래식은 야외에서도 핸드드립 커피를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일체형 텀블러입니다. 커피 콩을 갈아 뜨거운 물을 컵에 내려 뚜껑까지 덮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윤한상 빈스코프 사장이 개발한 ‘카플라노 클래식’은 원두를 직접 갈아 그 자리에서 물을 내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일체형 커피제조기’다. 그라인더와 주전자, 드리퍼, 텀블러 등을 한데 담은 것이 특징이다.

윤 사장은 “제일 윗부분은 뜨거운 물을 담아 작은 구멍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주전자 기능을 하고, 바로 아래엔 손잡이를 접었다 펼 수 있는 핸드밀 그라인더, 그아래엔 필터 드리퍼가 있다”며 “이 모든 부품이 450mL 크기의 텀블러에 쏙 들어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허받은 아이디어상품
성균관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윤 사장은 반도체 부품 제조사를 창업한 뒤 휴대폰 액세서리, 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2013년 까지 유통사업을 하던 중 커피 인기는 높지만 관련 용품은 국산 제품이 거의 없다는 데 착안해 직접 개발에 나섰다.

윤 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커피용품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쳤고 1년 반 만에 개발했다”며 “텀블러 안쪽 스

테인리스 소재와 그라인더의 세라믹 부품만 국산이 없어 중국산을 썼고 나머지 23개 부품은 모두 국내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플라노 클래식을 개발하는 동안 6명의 직원은 월급도 안 받고 개발에 매달렸다”며 “금형 제작비용만 2억여원, 생산비를 다 합치면 5억원가량 들었다”고 덧붙였다.

“샘플만 보고 선주문 800개”

올해 매출 50억 목표
등산용 미니 제품 곧 출시

카플라노 클래식은 핸드드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드립케틀(뚜껑 부분)의 다이아몬드 모양 노즐(물 나오는 구멍), 핸드밀 그라인더(원두 가는 장치)의 접히는 손잡이, 드리퍼와 그라인더를 일체형으로 연결한 구조, 이 모든 부품이 호환돼 조립할 수 있는 구조 등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 핸드밀 그라인더에는 4개의 눈금이 표시돼 있다. 콩을 담았을 때 10g, 15g, 20g, 25g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이다.

윤 사장은 “제일 어려웠던 건 그라인더 손잡이를 접히게 만드는 부분이었다”며 “단단한 경첩을 동그랗게 말리도록 하는 게 어

려웠고 컵의 겉면도 물결무늬로 경계선 없이 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50억원 매출 목표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카페쇼 전시회에 처음 제품을 공개했는데 샘플만 보고도 선주문이 800개나 들어왔다”며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해 현재 1만개의 수출 선주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아 올해는 50억원, 내년엔 200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빈스코프는 현재 대형 독일 커피회사와 5000개 판매 계약을 맺었다. 영국, 독일, 그리스,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중국 등에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선 일부 커피숍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에버랜드 커피숍 등 다양한 채널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올해 상반기 중 사이즈를 줄여 등산객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플라노 미니’를 출시하고 하반기엔 원두 보관함 겸 그라인더도 내놓을 계획”이라며 “세계 커피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피용품 4~5개를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윤한상 빈스코프 사장이 올인원 커피제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인피노의 세라믹 면도기 070-4820-0588 △KYK김영귀환원수의 알칼리 이온수기 (031)777-3939 △빈스코프의 올인원 커피 제조기 (02)2163-0287 △컨셉의 스마트폰-태블릿PC용 터치펜 070-4353-6329



“공공기관서 중소기업품 우선 사용해야”

중소중앙회장 후보 간담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4명이 지난 13일 공개 기자회견 담화를 열었다. 오는 27일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관련 단체장 528명이 투표해 뽑는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박주봉 철강조합 이사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용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빠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하는 ‘단체 수의계약제도’ 부활과 정부 대사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병문 이사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지방 협동조합 직원들의 임금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부 보전해주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자”고 말했다. 또 “2007년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사라진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에만 적용해 다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기중앙회의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며 “업종을 세분화해 제조 쪽에서 7-8개, 유통 및 서비스에서 4개 등 총 12개 업종별 사업부를 만들고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정책을 다시 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세제시장 공략을 최대한 돕겠다”며 “중기중앙회와 각 협동조합, 대사관을 연계시켜 기업들의 해외업무 지원에 활용하고 해외사업 자금 지원과 정책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히든챔피언을 중기중앙회에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박주봉 이사장은 “상위 5개 대기업을 연간 물품구매에 250조원을 가려와 500억 규모의 민간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간 주도로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운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활성화 기금을 4년간 매년 500억원씩 2000억원 규모로 만들겠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나부터 사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 소나타 터보 : Sport 2.0T 모델임

SONATA Turbo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콜센터 서비스 080-600-6000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T-GDI (AT) 복합 10.8km/ℓ (도시 9.3km/ℓ, 고속도로 13.2km/ℓ) | CO2배출량-164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570kg | 저속연비(45km/h) | 휘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병, 급가속 및 급